

##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형성에 관한 기초연구

김동찬\* · 김광래\* · 안봉원\* · 서주환\* · 김신원\*\*

\* 경희대학교 조경학과

\*\* 경희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박사과정 수료

### A Basic Study on the Creation of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in North Korea

Kim, Dong-Chan\* · Kim, Kwang-Rai\* · Ahn, Bong-Won\* · Suh, Joo-Hwan\* · Kim, Shin-Won\*\*

\*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 Hee University

\*\* Ph. D. Candidate, Departmen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 ABSTRACT

This research study presents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in North Korea. In this study, the creation of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in North Korea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in 1945, as yet unpublished in the field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s investigated. For conducting this study, the method of archival research, in which regarding documents, plans and photographs are investigated, was used. This study covers notions, establishment,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distribution and present status, developmental stages, concrete example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mean all the places where revolutionary achievements of Kim, Ill-Sung and his family are reached. Those sites have been actively created for the purpose of the idolization of Kim, Ill-Sung since the 1960s. In recent years, the sites have been renovated and new places of this kind have been constructed, so that various idolization facilities and structures are now everywhere in North Korea.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are mainly distributed in Pyongyang (the capital city of North Korea), the forest areas of Mt. Pakdu,

the areas along the shore of the Tuman River and the Abrock River. In those sites, various historic revolutionary relics are preserved, and the statues of Kim, Ill-Sung, historic revolutionary monuments, revolutionary museums and other facilities are constructed. These places can not be regarded as planned spaces for people in true the meaning of place, and accordingly they must be reconstructed for people's use. They can be redeveloped as places of history, culture and education, theme parks, green open spaces, and sight-seeing facilities after unification of Korea. This study can be used as valuable information for further study especially for the reconstruction planning of the places in preparation for a probable unified Korea.

For a profound study, North Korea must open broader and more accurately detailed documents, regarding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to the outside world,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also have a sense of co-ownership of the information about North Korea rather than exclusive possession and restrictions. Ultimately, academic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must be realized and on-the-spot surveys must be carried out so as to find a reasonable land use plan for the historic revolutionary sites for a future unified Korea.

## I. 서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한민족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과제 가운데 하나는 통일문제일 것이다. 남북한은 분단 이후 반세기 가까이 상반된 체제를 유지해온 결과 체제간의 이질성 정도가 심각한 실정이며, 더 늦기 전에 민족의 동질감을 바탕으로 이러한 체제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민족통일의 대과업을 이루어야 함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김일성이 죽고 통일에 대한 현실성이 커지면서 분단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통일에 대한 막연한 기대보다 인내와 끈기로 미래를 준비하며 현실적으로 통일을 논하고 북한의 현실을 상세히 파악하여 통일의 원동력으로 삼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있는 것이다.

현재 각 분야에 걸쳐 현실적으로 통일을 논

하고 준비하는 작업이 정부기관, 민간연구소, 대학, 개인, 기업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된 한반도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 중시해야 할 항목으로서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에서의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남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국토공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토활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북한의 국토건설계획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북한의 국토 및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가운데 주목해야 할 분야가 바로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건설에 관한 것이다.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는 북한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장소로서 항일무장투쟁 이래의 혁명전통을 대중들에게 교양시키는 공간이 되고 있으며, 이들 공간의 육성 및 보호를 국토건설총계획에 포함해야 할 9가지 사항 가운데 제일 우선 항목으로 강조하고 있다.<sup>1)</sup> 북한은 대외선전을 북한체제의 연장수단으로 이용하여 김일성 우상화

를 위한 상징물 및 날조된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를 관광대상으로 삼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도시개발의 기본방침으로서 김일성의 혁명업적을 과시할 수 있는 혁명 도시의 육성을 위한 사적지 및 유적지 개발<sup>2)</sup>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 전역에 걸친 이러한 기념비적 시설 및 수상화 시설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은 역사·문화적 자원개발이라 할 수 없고 순수한 의미의 관광자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sup>3)</sup>

본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공간활용계획을 준비하는 기초작업으로서 북한의 국토 및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오픈스페이스 요소인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에 관한 연구이다.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는 이들 공간이 지닌 정치사상 및 혁명업적을 장소화하는데 따르는 조경 및 건축행위로 인하여 조경학적 관심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이들 장소에는 해당 유물 및 유적이 보존되어, 있고 혁명사적 및 혁명전적 내용에 따라 각종 동상, 건물, 기념탑, 기념비, 녹지공간 등이 조성되어 있어 이들 공간에 대한 조경학적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해방 이후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건설에 관한 조경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는 그동안 발표된 적이 없고, 다만 타분야에서 정부기관의 보고서 혹은 활자 및 전파매체를 통하여 일반시민에게 이들 장소가 단편적으로 소개된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해방후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에 관한 각종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들 공간을 소개하고, 장차 한반도의 통일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공간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공간을 역사·문화·교육의 장, 관광지, 테마공원, 공원녹지공간 등으로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국내 및 북한자료를 이용한 문헌 연구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북한자료의 획득은 통일원 북한자료센터와 북한연구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필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전통적인 역사연구 방법론에 의거한 서술적 접근방법을 이용, 북한에서 발간된 1차 원 자료들과 국내 정부기관 및 민간연구소의 자료들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여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도구로써 활용했으며, 입수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서술적으로 묘사하였다. 또한 파악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해석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북한원전과 국내자료의 내용들을 비교하고 검토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이들 공간이 지닌 일반적 특성을 고찰하여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정성적(定性的) 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구주제와 연관된 통계위주의 정량적(定量的) 자료는 현재로서는 전무하여 계량적

1) 1977년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제17조에는 국토건설총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김일성(1986), 「김일성 저작집 32(1977. 1-1977. 12)」,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227.)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며 보호하기 위한 대책
  2. 토지를 정리, 개량하고 보호하며 새땅을 얻어내며 간석지를 개간이용하기 위한 방향과 대책
  3. 산림조성 방향과 보호 및 그 이용과 이로온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강하천, 호수, 저수지의 건설 및 정리 방향,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들의 배치 및 물의 종합적 이용대책
  5. 교통운수, 전기, 체신망과 그 시설물의 합리적 배치
  6. 지하자원의 개발구역과 공업, 농업 기업소들을 배치할 위치와 규모
  7. 도시와 마을, 휴양지, 요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물 및 문화유적유물의 보호대책
  8. 연안, 영해를 종합적으로 개발이용하기 위한 방향과 연안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9. 공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
- 2) 국토통일원(1985), 「북한의 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실태」:17.  
3) 이장춘 외(1995), 「통일과 관광개발—한반도 관광진흥장기종합계획」, 서울:한국관광진흥연구원:174.

분석방법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현상항하에서 북한의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형성에 관한 연구가 지난 일차적인 한계점은 자료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아직까지 어떤 국내의 학자도 이들 장소에 직접 가서 실증적인 공간연구를 수행한 예가 없을 뿐더러, 혹 외국의 학자가 북한을 방문했다 하더라도 자유로이 이들 공간에 대해 조경학적 연구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졌는지에 관해 의문이 제기된다. 따라서 현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료는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입수·공개한 북한의 원자료가 주가 될 것이다. 연구자료와 연관된 원천적 한계, 즉 자료의 부족상황, 자료의 입수 및 공개에 따른 제약, 자료의 존재유무에 관한 불확실성, 자료의 신빙성·정확성·비체계성 등은 현재로서는 연구자들이 해결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한정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주어진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질적인 접근방법에 의해 이들 공간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려는 시도가 중요하리라 판단한다.

필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먼저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가 북한에서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에 대한 개념을 검토해보고, 이들 공간이 왜 건설되었는지 그리고 누구의 혁명업적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그 조성목적과 내용적 범위를 개관해보았다. 또한 이들 공간을 건설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정책 및 방향, 관련법규를 살펴보는 한편 대표적인 장소의 분포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의 형성과정을 시대별로 살펴보고 주요공간의 모습을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분석하였다.

## II.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개념

「현대조선말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개념은 다음과 같다(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88).

- 혁명사적지 — 노동계급의 수령 또는 탁월한 혁명가의 혁명활동과 투쟁업적이 깃들어 있는 사적지

- 혁명전적지 — 혁명군대가 적들과 맞서 싸운 전투가 진행된 자취가 깃들어 있는 장소

또한 「조선문화어사전」에 명기된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1973).

- 혁명사적지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적 가정 및 혁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며 우리 인민의 역사에 길이 전해질 유서깊은 곳

- 혁명전적지 —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행정에서 쌓아올리신 영생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는 유서깊은 곳

즉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사적지란 김일성의 가계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거나 김일성이 일제에 반대하여 조국의 광복과 해방을 위한 항일혁명에서 이룩한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는 장소를 의미하고 있어, 김일성과 그의 일족들이 출생한 장소와 혁명활동근거지를 비롯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위해 회의, 연설, 숙영 등을 했던 장소를 지칭한다. 이처럼 북한의 혁명사적지는 일반적인 사적지 개념과는 그 뜻을 달리하고 있다(국가안전기획부, 1986).

또한 혁명전적지는 김일성과 그의 일족 및 대원들이 전투를 했다는 장소로서, 일제 침략자를 때려부순 수많은 전투장소들과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인민에게 정확한 투쟁의 앞길을 밝혀준 주요한 회의장소를 비롯하여 전투적 위훈과 정치활동의 자취가 스며있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국토통일원, 1985).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와 관련하여 밀영지, 유격근거지, 숙영지, 현지도도 사적비 등의 용어도 사용되고 있는데, 평양에서 발간된 「현대조선말사전」에는 이들 용어의 개념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밀영지 — 유격전을 위하여 산림지대의 유리한 자연조건을 이용하여 비밀리에 지은 집이 있는 곳
- 유격근거지 — 유격대가 군사정치활동에서 의거하고 있는 근거지
- 숙영지 — 행군 도중에 한데서 간단한 잠자리를 마련하고 묵는 장소
- 현지지도 사적비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몸소 창조하시고 실천적 모범을 보여주신 혁명적 영도방법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세운 비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는 김일성과 그 일족들의 공적이 깃들어 있는 모든 장소를 의미하고 특히 혁명전적지는 혁명사적지의 한 형태이며, 이들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용어들은 이들 장소에 포함되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 Ⅲ.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설정 및 범위

북한은 1950년대부터 김일성의 1인독재체제를 위한 혁명전통교양사업의 일환으로 김일성과 그 가계의 우상화 정책을 실행해 왔으며(국가안전기획부, 1986), 특히 혁명사적과 혁명전적의 조작을 우상화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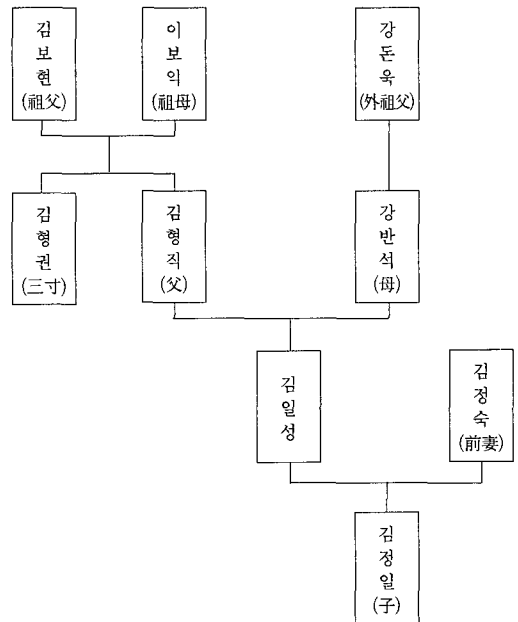
북한의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건설은 혁명전통론 및 북한정치의 전개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김일성은 1960년 말부터 그의 우상화 조작을 강요하면서 혁명전통을 날조하기 위해 한운경, 임춘추, 고혁 등의 문인들을 불러 항일빨치산 활동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이들에게 과거 만주에서 유격활동을 하던 사적지와 전적지를 조사하여 사실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들은 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사적지와 전적지를 정하고 조작하였던 것이다(국토통일원, 1985).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는 김일성과 그의 일족들이 출생한 장소와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다는 지역을 성역화하여 사적관을 비롯한 각

종 상징조작물을 설치, 북한의 전주민을 대상으로 김일성 유일사상 및 그의 가계 우상화를 위한 학습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와 관련하여 김정일 우상화와 이들 장소를 연관시키고 있어 주목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북한의 대표적인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는 김일성과 그 일족들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다는 장소로서, 주된 내용으로는 김일성의 항일투쟁 및 전투지휘업적,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 찬양 및 우상화,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과 어머니 강반석의 혁명활동,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과 그 대원들의 혁명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1)은 주요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에 깃들어 있다는 혁명업적의 주인공인 김일성과 그 일족들의 혈연관계를 보여주는 김일성 가계도이다.

(그림1)에 제시한 김일성 가계도는 북한의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의 분포 및 현황과 관련하여 이들 장소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한 것이며, 현재로서는 여기에 등



(그림1) 북한의 주요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와 관련된 김일성 가계도

장하는 인물들과 이들 공간 형성과의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상의 어떤 연관성을 논할 만큼 충분한 자료 입수가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혀둔다.

#### IV.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건설 방향 및 관련법규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과 지도자의 지배이념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교시 및 김정일의 지도가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정책결정 및 법규제정의 기본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장에서는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건설에 있어서 기본정책 및 방향을 제시하는 김정일의 담화내용을 알아보고, 종합법의 성격을 띠며 토지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북한의 토지법 가운데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와 관련된 법규조항을 살펴본다.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와 연관된 관련법규는 현재까지는 북한의 토지법에 제시된 내용 이외에는 보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건설을 국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국토개발사업은 당국의 치밀한 목표와 계획하에 추진되고 있는데, 국토개발 기본방침 가운데 하나로 주민의식개조가 제시되어 있다. 주민의식개조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특정도시 및 특정지역에 대한 도시정비, 상징적인 대규모 편의시설, 김일성 위상화와 관련된 사적지, 사적관, 상징물 건립, 그리고 명승고적 정비 등이 있다(국토통일원, 1985).

김정일은 1968년 7월 21일 ‘량강도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자’라는 제목의 양강도 책임일꾼 및 항일혁명투사들과

한 담화<sup>4)</sup>에서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꾸리는 것은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위대한 혁명업적을 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교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라고 명시하여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 건설목적, 혁명전적지 건설의 근본원칙,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

〈표1〉 김정일에 의한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건설내용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건설	
건설 목적	당원 및 근로자들의 혁명전통 교양
건설 원칙	김일성의 혁명활동사적을 기본으로 하여 건설
건설시 중요사항	김일성이 이룩한 혁명전통의 순결성 보장
건설 방법	혁명활동의 내용을 담은 유적 및 유물 조사발굴
혁명 유적 및 유물의 보존관리	혁명유적 및 유물이 손상, 퇴색, 변질됨이 없이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보존
공간 활용 계획	당원 및 근로자들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답사

〈표2〉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관련법규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관련법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제17조 국토건설총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며 보호하기 위한 대책.
	제4장 토지 보호	제37조 국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림을 정한다.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 구 안에서는 나무를 벨 수 없다.
	제6장 토지 관리	제75조 특수토지에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 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이용되는 토지가 속한다. 특수토지의 관리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그것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소, 군부대가 한다.

4) 김정일(1992), 「김정일 선집 1(1964-1969)」,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375-3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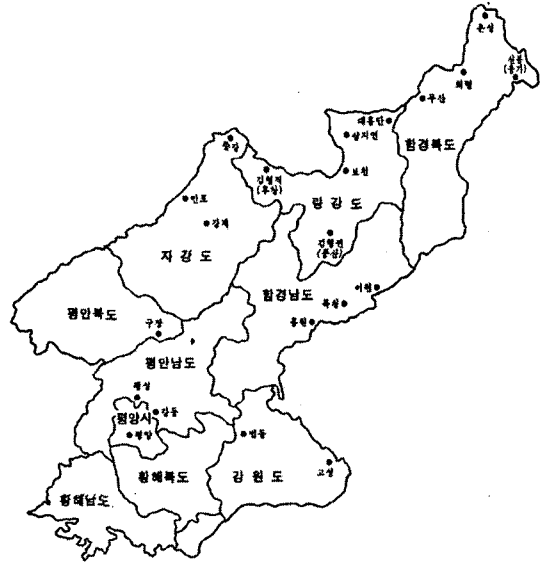
건설시 중요사항, 건설방법, 혁명유적 및 유물의 보존, 혁명전적지 및 혁명사적지 답사 등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상과 같은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개발 기본방침은 1977년 4월 2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sup>5)</sup>에 명문화되었는데, 관련조항을 살펴보면 <표2>와 같다.

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분포도 및 현황표이다.<sup>6)</sup> 북한 전역에는 이렇듯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와 같은 각종 우상화 시설 및 상징조작물이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 V.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분포 및 현황

북한의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는 북한주민들의 강제순례 및 참관을 고려하여 만주지역에는 수개의 유적근거지, 회의장소, 밀영지만을 설정해 두고 대부분의 경우 평양시를 제외하고는 주로 백두산 밀림지대, 두만강 및 압록강 연안 일대, 함경남북도, 양강도, 자강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2)북한의 주요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분포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와 아울러 특기할 만한 시설로서 주체사상탑, 개선문, 대성산 혁명열사릉과 같은 각종 우상화 상징조작물을 언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업적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내외에 선전하고 전시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 도시 및 명승지에 외관위주로 건설된 것이다.

(그림2)와 <표3>은 국내 및 북한의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북한의 주요 혁명

5) 김일성(1986), 「김일성 저작집 32(1977.1-1977.12)」,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224-238.  
6) 필자가 참조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국내자료  
-국토통일원(1984), 「북한의 지역개발 및 해외인사초청 선전실태」.  
- (1985), 「북한의 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실태」.  
-국가안전기획부(1986), 「김일성가게 우상화 실태」.  
-동아일보사(1995), 「김정일 북한대백과」, 서울:동아일보사.  
● 북한자료  
-백과사전출판사(1974, 1975), 「백과사전 (1), (2)」, 평양:백과사전출판사.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2, 1983, 1984), 「백과사전 (1), (2), (3), (4), (5), (6)」,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공업종합출판사, 「조선건축」, 평양:공업종합출판사.

〈표3〉 북한의 주요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현황

명 칭	위 치	선 전 내 용
가라지봉 밀영지	함경북도 무산군	1932년부터 1936년까지 공작원들의 정치군사활동 거점
견창숙영지	양강도 삼지연군	1939년 5월 19일 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하룻밤을 묵은 장소
고산진혁명사적지	자강도 만포시 고산리	6·25전쟁 당시 김일성이 각급회의를 소집한 장소
구시물동	양강도 보천군	보천보전투를 위하여 1937년 6월 3일 인민혁명군이 압록강을 건넜던 물동
대흥단혁명사적지	양강도 대흥단군 대흥단읍	무산지구전투를 위하여 1939년 5월 22일 김일성이 집결지로 정한 장소
덕골혁명사적지	평안북도 구장군 노현리	1950년 10월 1일 김정일이 혁명의 큰 뜻을 키우기 위해 장자산으로 가던 길에 들렀던 장소
두만강연안유적근거지	두만강 일대	1931년 11월 명월구 회의의 방침에 따라 1932년 설치된 완전유적근거지
만경대	평양시 만경대구역	1912년 4월 15일 김일성이 출생한 장소
명신학교	평안남도 강동군 봉화리	1916년 봄부터 1917년 가을까지 김형직이 교편을 잡은 학교
무산지구전투전적지	양강도 삼지연군 및 대흥단군 일대	1939년 5월 무산지구에서 김일성이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던 전투지
무포숙영지	양강도 삼지연군 무봉노동자구	1939년 5월 21일 김일성이 대기단지구 진출을 위한 작전계획을 제시하면서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숙영한 장소
백두산근거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	1930년대 후반기 백두산을 중심으로 주변의 넓은 지대에 설치된 근거지로서,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이동하면서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든 반유적형태의 비밀근거지
백송혁명사적지	평안남도 평성시 백송리	1952년 4월 중순 김일성이 백송리의 김일성종합대학을 방문한 장소
배개봉숙영지	함경북도 삼지연군	1939년 무산지구로 진출할 때 하룻밤을 숙영한 장소
보천보전투전적지	양강도 보천군	1937년 6월 4일 김일성이 혁명군을 이끌고 보천보를 습격한 장소
봉화혁명사적지	평안남도 강동군	김형직과 강반석이 혁명활동을 전개하고 김일성이 혁명의 큰 뜻을 키웠던 장소
북청혁명전적지	함경남도 북청군	1930년 김형권이 항일혁명활동을 전개한 장소
삼일포혁명사적지	강원도 고성군 삼일포리	1947년 9월말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이 들렀던 장소
삼지연혁명전적지	양강도 삼지연군 삼지연읍	김일성이 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끌고 무산지구전투를 위하여 진출할 때 잠시 들러 휴식을 취하면서 작전계획을 수립한 장소
서수리혁명사적지	함경북도 용기군(선봉군) 용기리 망향고개	1945년 8월 조국해방전쟁에 참여하여 일제소탕에 가세했던 전투지
선봉혁명사적지	함경북도 선봉군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는 장소
쑥새골숙영지	함경북도 회령군	1930년대 정치공작원의 국내공작을 위한 연락장소로서, 정치공작과 경제공작을 위해 설치한 비밀거점
쑥섬혁명사적지	평양시 대동강내 쑥섬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는 장소
순화학교	평양시 만경대구역 만경대동 일대	김형직이 청소년을 교육한 건물
연봉혁명사적지	자강도 강계시 연봉동	김일성이 1950년 12월 2회에 걸쳐 당과 인민을 영도한 장소
5호물동	양강도 삼지연군	1939년 5월 18일 인민유적군이 이곳에서 압록강을 건넜던 혁명전적지
왕재산혁명사적지	함경북도 온성군	1933년 3월 11일 김일성이 왕재산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을 국내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전략적 방침을 제시한 장소
용포혁명사적지	강원도 법동군 용포리	6·25전쟁 당시 김일성이 인민군을 격려 지휘한 장소
이원혁명사적지	함경남도 이원군	김형권이 무장소조를 인솔하고 1930년 국내에 진출하여 활동한 장소
전승혁명사적지	평양시 Moran봉구역	김일성이 1951년초부터 1953년까지 머물면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소
중강혁명사적지	자강도 중강군 중강읍	김형직이 출옥후 혁명활동을 전개한 장소
창덕학교	평양시 만경대구역	1907년 김일성의 외조부 강돈옥에 의해 설립된 학교로서, 김일성이 1923년부터 1925년까지 수학한 학교
청봉숙영지	양강도 삼지연군	1939년 5월 김일성이 인민혁명군을 인솔하고 무산지구로 가던 도중 숙영한 장소
칠골집	평양시 만경대구역 칠골동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의 생가
파발혁명전적지	양강도 풍산군(김형권군) 파발리	1930년 8월 14일 김형권이 왜경 순사부장을 사살한 장소
포평혁명사적지	양강도 후창군(김형직군) 내 압록강 기슭	김형직의 혁명운동시 연락장소, 김일성의 조모 이보익의 항거장소, 김일성이 어린 시절 압록강을 건너던 포평나루터
풍산혁명사적지	양강도 풍산군 매덕리	1930년 여름 김형권이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를 이끌고 쉬어 갔던 주막집이 있으며, 이 주막집에서 행동방침을 짜고 지방사정을 파악하여 파발리사건의 승리를 얻었던 장소
홍원혁명사적지	함경남도 홍원군	1930년 김형권이 반일무장투쟁을 전개한 장소
회령혁명사적지	함경북도 회령군	김정숙이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낸 장소



## Ⅶ.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의 시대별 형성과정

본 장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시대별 형성과정과 관련한 내용은 주로 북한의 문헌을 토대로 한 것이며,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사항을 담고 있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획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본 연구자의 판단으로는 북한에서 조차 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지 않아 구체적인 연구 결과물이 없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는 마치 한국의 현대 조정역사와 작품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평가가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장래 보다 발전된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의 형성과정에 대해 시대별로 일반적인 내용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의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건설은 그들의 혁명전통론 및 정치의 전개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국가안전기획부(1986)가 발간한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실태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김일성 1인 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우상화 작업으로서 1945년부터 1950년까지의 기간에 반 김일성 세력을 제거하고 항일빨치산의 서적을 발간보급하는 한편 혁명전적지 및 박물관을 건립하는 등의 김일성 혁명역사를 조작하기 시작했다. 그 실례로 1958년 압록강 상류 및 두만강 인근 산간지역에 혁명전적지, 혁명박물관, 동상 등을 건립하였다.

1960년대부터는 김일성의 세력이 확고히 구축되면서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건설이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1967년 5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 전원회의 이후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1960년대 북한에서는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를 청소년 학생과 근로자를 주체형

의 혁명가로 육성하기 위한 혁명전통교양장소로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1960년대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건설은 사적물을 원상대로 복구보존하고 당의 혁명전통을 깊이 체득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조성하며 원림을 아름답게 꾸미고 답사에 편리하게 만든다는 원칙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김일성의 동상을 세우고 혁명사적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 기념비, 사적비, 유래비를 건립하였으며 박물관, 사적관, 휴양소, 휴게소, 야영소, 숙소를 건설하는 한편 넓은 마당, 광장, 표식주, 유화관, 정각 등을 조성하였다.

1960년대에는 만경대, 칠골, 봉화리, 보천보, 삼지연, 청봉, 고산진, 용포리, 포평나루, 이명수, 신사동, 후창, 백두산 등지에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가 건설되었다.<sup>7)</sup>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당의 혁명역사와 투쟁업적이 깃들어 있다는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를 더 잘 꾸미거나 새롭게 건설하는 사업이 진행되었다. 혁명사적지 건설은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혁명사적물을 원상대로 복구보존하고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장소가 되게 하며 답사자의 편의를 고려하면서 풍치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원칙에서 이루어졌다. 혁명사적지에는 혁명사적의 내용에 따라 공산주의 혁명투사들의 동상을 배치하고 사적지의 성격에 따라 혁명사적비, 유래비, 헌시비, 표식주 등의 기념건축구조물을 세웠으며 답사자들을 위한 봉사 및 휴식시설도 갖추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새로 건설되었거나 더 잘 꾸며진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로는 왕재산혁명사적지, '배움의 천리길'과 '광복의 천리길' 혁명사적지, 봉화혁명사적지, 은하혁명사적지, 용포혁명사적지, 연풍혁명사적지, 군자혁명사적지, 향하혁명사적지, 회령혁명사적지, 은울혁명사적지, 청수혁명사적지, 중강혁명사적지, 흥원혁명사적지, 어은혁명사적지, 삼지연혁명사적지, 만경대혁명사적지 등이 있다.<sup>8)</sup>

7) 리화선(1993), 「조선건축사Ⅲ」, 서울:발언:29-33.

8) \_\_\_\_\_(1993), 「조선건축사Ⅲ」, 서울:발언:146-153.

### Ⅶ.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실례

본 장에서는 북한의 주요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의 면모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수집된 북한자료 가운데 공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혁명사적지 5개소에 대해 위치, 기능, 공간구성, 도입시설, 원림형성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소개하는 실례들은 현재까지 우리 정부가 공개한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에 관한 북한의 자료 가운데 조경학적 연구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즉 공간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갖춘 문헌자료만을 선정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보다 풍부한 자료를 이용한 연구가 바람직하겠지만 현상황하의 북한자료 입수 및 공개에 수반하는 원천적 제약으로 인한 부분적 자료제시의 불가피성을 밝혀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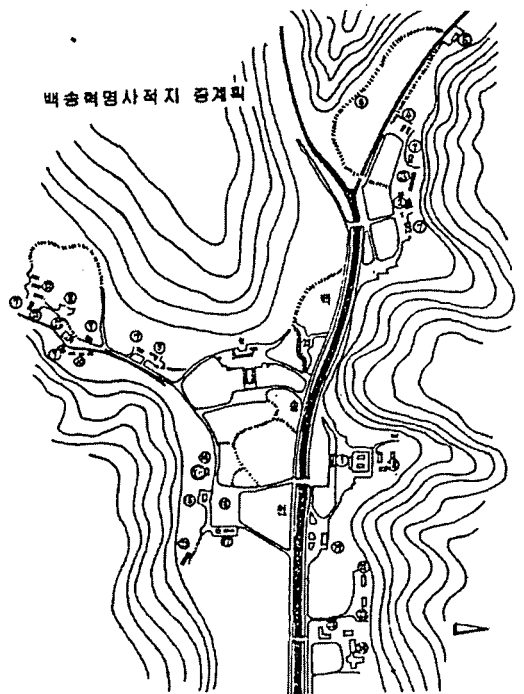
#### 1. 백송혁명사적지

백송혁명사적지는 한국전쟁시기에 백송리(당시 평안남도 순천군 자산면 백전리)로 옮겨진 김일성종합대학을 1952년 4월 중순 어느날 김일성이 몸소 방문하여 종합대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연설했다는 장소인데, 이곳이 당원, 근로자, 자라나는 새세대를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교양육성하기 위한 사상교양거점으로 조성된 것이다.<sup>9)</sup>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북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백송리의 백전골짜기에 위치한 백송혁명사적지는 혁명사적의 분포와 자연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2개의 혁명사적구역, 대중교양구역, 편의봉사 및 경영구역으로 나누어 계획되었다.

(그림3)은 백송혁명사적지의 총계획도이다. 먼저 혁명사적구역은 대학본부를 중심으로 한 사적구역과 연설터를 중심으로 한 사적구역으

로 나누어 계획되었는데, 전자의 구역에는 대학본부, 담화하신 집, 새벽길, 농민의 집이 있으며 후자의 구역에는 학생식당, 조선어문학부 기숙사, 휴식터, 연설터, 헌시비 등이 있다. 혁명사적구역에서는 사적건물과 사적물 및 사적터를 원상대로 보존하고 여기에 대형유화판과 표식비를 세워 사적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한편 각각의 사적건물과 사적터 앞에는 교양마당을 배치하였다. 혁명사적구역의 원림형성은 당시의 옛모습을 보존하는 원칙하에 이루어졌



- |               |                |
|---------------|----------------|
| 1- 백송혁명사적관    | 13- 휴식터(사적)    |
| 2- 대학본부       | 14- 야외강의터      |
| 3- 담화하신 집     | 15- 강사대기실      |
| 4- 농민의 집      | 16- 주차장        |
| 5- 새벽길표식비     | 17- 우산형비건이데    |
| 6- 새벽길로정      | 18- 사무실        |
| 7- 대형유화판      | 19- 응접실        |
| 8- 헌시비        | 20- 위생실        |
| 9- 학생식당       | 21- 온실         |
| 10- 조선어문학부기숙사 | 22- 차고         |
| 11- 연설터       | 23- 상점         |
| 12- 교사        | 24- 당사숙영소 및 식당 |

(그림3) 백송혁명사적지 총계획도(출처:「조선건축」, 제15호:18)

9) 김정일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백송혁명사적지는 수령님의 위대한 교육사상과 평도의 헌명성을 후대들에게 길이 전할 중요한 사적지입니다. 앞으로 백송혁명사적지를 더 잘 꾸려 학생들과 근로자들의 훌륭한 교양거점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 (주용구, 윤연(1991), “영광의 땅 — 백송혁명사적지”, 「조선건축」, 제15호:17.)

는데, 예를 들어 대학본부가 있는 사적구역에는 당시부터 있던 밤나무와 포플라나무를 보존하면서 사적건물 주변에 잔디밭을 조성하고 장식용 수목과 꽃나무를 심었다. 대중교양구역에는 이 구역의 중심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과 연건축면적이 1,400㎡인 사적관 그리고 산경사를 이용하여 만든 야외강의터가 배치되어 있다. 동상 앞에는 교양마당을 배치하는 한편 넓은 잔디밭도 조성하였다. 편의봉사 및 경영구역은 사적지입구 주변에 조성하였는데, 배치시설로는 주차장, 강사대기실, 응접실, 답사숙영소, 식당, 상점, 차고, 온실, 소휴식공원, 후생시설 등이 있다.

백송혁명사적지의 전반적인 원림형성은 김일성이 이곳을 방문했다는 4월의 봄풍경을 가장 아름답게 장식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sup>10)</sup>

## 2. 선봉혁명사적지

함경북도 선봉군에 위치한 선봉혁명사적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다는 혁명사적지이다. 선봉군은 1945년 11월 김정숙과 김정일이 이곳에서 혁명활동을 했다는 장소이자, 1959년 3월에는 김일성이 이곳에 군중합창장을 창설하고 공산주의 농촌건설의 시범단위로 만들었던 장소이다. 훗날 김정일이 선봉군을 공산주의 이상촌으로 꾸밀 것을 밝히면서 선봉읍 도시중심부에 김일성의 동상을 세우고 그 주변에 혁명사적관을 건설하는 등 선봉혁명사적지를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계획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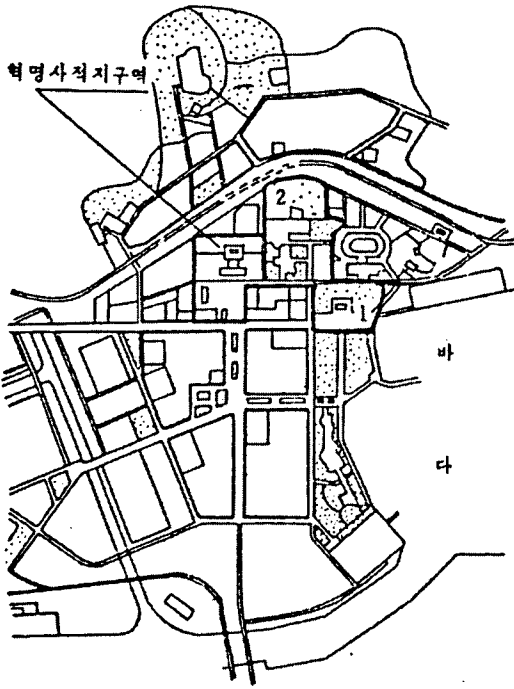
선봉혁명사적지는 김일성의 동상이 계획된 도시중심, 선봉항기념비, 중현언덕주변사적지를 포함하고 있다(그림4). 선봉혁명사적지계획은 혁명업적을 담은 혁명사적지들을 잘 꾸미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 녹지를 비롯한 구성요소들을 사적지형성에 도움이 되게 계획하였다. 동상주변의 사적지와

그밖의 사적지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만들고 그것이 도시총계획의 기본구성중심이 되도록 했으며, 기존의 사적건물과 사적지들을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하여 계획이 이루어졌다.

선봉혁명사적지는 크게 혁명사적구역, 대중문화휴식구역, 상업편의봉사구역, 관리경영구역으로 나누어 계획하였다. 먼저 혁명사적구역은 사적지의 내용과 특성, 자연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도시중심광장주변지역, 선봉항기념비주변지역, 중현언덕사적지주변지역의 3개 지역으로 구성하였다(그림5). (그림6)은 도시중심광장주변지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지역에서는 김일성의 동상을 광장중심축상에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로부터 서북쪽으로 150m 떨어진 언덕지대에 세우고 동상앞에 교양마당과 대기마당을 계획하였다. 또한 대기마당 한쪽에 혁명사적비를 배치하고, 사적비 주변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하여 사적비 앞에서 참관자들이 비문을 읽고 강사의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독립적인 교양마당을 배치하였다. 동상주변과 광장주변 원림형성에서는 잔디와 장식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배치하고 꽃나무들을 조화롭게 심도록 하였다. 선봉항기념비주변지역에서는 선봉항기슭에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 주변에 표식주를 세우는 한편 잔디와 장식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였다. (그림7)은 중현언덕사적지주변지역의 모습이다. 이 지역에는 중현언덕 제일 높은 곳에 표식비를 세우고 그 앞에 교양마당을 배치하였다. 중현언덕사적지에는 혁명사적건물들이 있으며 건물 옆에는 사적건물을 소개하는 표식주를 세웠다. 각각의 사적건물 주변의 원림형성은 여러가지 나무들과 화목 및 1년생 화초들을 배합하여 이루어졌다.

선봉혁명사적지에는 3개 지역으로 구성된 혁명사적구역 이외에도 도시중심광장주변지역과 중현언덕사적지 사이에 공원을 꾸미고 여러가지 문화휴식시설을 배치한 대중문화휴식구

10) 주용구, 윤연(1991), "영광의 땅 — 백송혁명사적지", 「조선건축」, 제15호:17-23.



선봉혁명사적지 위치도

- 1 — 선봉항기념비    2 — 중현언덕표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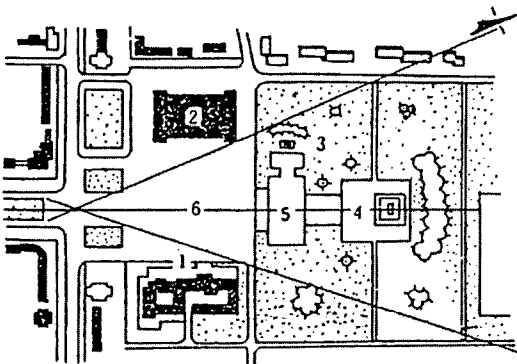


선봉혁명사적지 배치 및 도시중심부 형성지점 분석도

- |             |            |
|-------------|------------|
| 1 — 선봉혁명사적비 | 7 — 전우의 집  |
| 2 — 선봉혁명사적관 | 8 — 농민의 집  |
| 3 — 선봉항기념비  | 9 — 사적건물   |
| 4 — 기념비     | 10 — 달사숙영소 |
| 5 — 중현언덕표석비 | 11 — 경영구   |
| 6 — 선봉경무부   |            |

(그림4) 선봉혁명사적지 위치도(출처:「조선건축」, 제 19호: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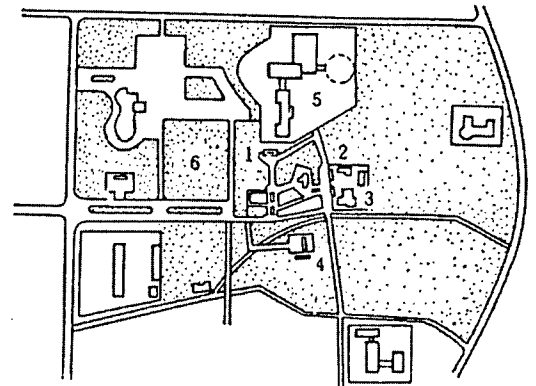
(그림5) 선봉혁명사적지 배치 및 도시중심부형성지점 분석도(출처:「조선건축」, 제 19호:26)



도시중심광장 주변사적지 계획도

- |                  |          |
|------------------|----------|
| 1 —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 | 4 — 교양마당 |
| 2 — 선봉혁명사적관      | 5 — 대기마당 |
| 3 — 선봉혁명사적비      | 6 — 광장   |

(그림6) 도시중심광장주변사적지 계획도(출처:「조선건축」, 제 19호:27)



중현언덕사적지 배치도

- |                         |            |
|-------------------------|------------|
| 1 — 중현언덕표석비             | 2 — 전우의 집  |
| 3 — 조선인민혁명군 선봉경무부가 있던 곳 |            |
| 4 — 농민의 집               | 5 — 학생소년공진 |
| 6 — 옥지                  |            |

(그림7) 중현언덕사적지 배치도(출처:「조선건축」, 제 19호: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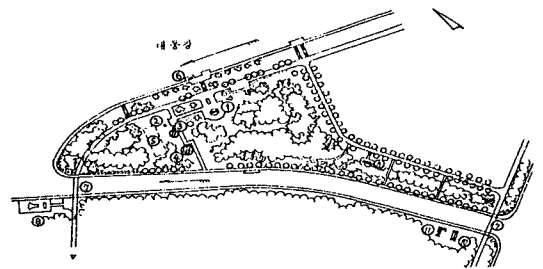
역, 답사숙영소와 답사회관, 상점, 식당, 이발소 등의 편의시설을 배치한 상업편의봉사구역, 그리고 사무실, 휴게실, 제작실, 창고, 차고, 온실 등의 관리경영건물들을 배치한 관리경영구역이 구성되어 있다.<sup>11)</sup>

### 3. 쑥섬혁명사적지

평양시 대동강에 있는 쑥섬은 38만㎡의 면적을 가진 섬으로서, 남쪽은 평양시 낙랑구역과, 서쪽은 운하를 사이에 두고 두루섬과, 북쪽은 평양시 평천구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통일거리를 거쳐 평양으로 들어오는 충성의 다리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이 쑥섬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의 혁명업적을 체득하기 위한 혁명사적지로서, 또한 휴식과 문화정서생활을 위한 유원지로서 조성된 것이다(그림8).

쑥섬은 크게 혁명사적구역(면적:12만㎡)과 유원지구역(면적:26만㎡)으로 나뉘어 계획되었다. 혁명사적구역은 1948년 남북연석회에 참가한 남한의 인사들과 협의회를 가졌다는 통일관련 사적지로서, 이곳에는 쑥섬협의회장소, 나루배, 나루터, 원두막 등의 사적터와 사적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사적지 참관이 편하도록 교양마당과 참관도로를 조성하였다(그림9). 유원지구역은 몇개의 소구역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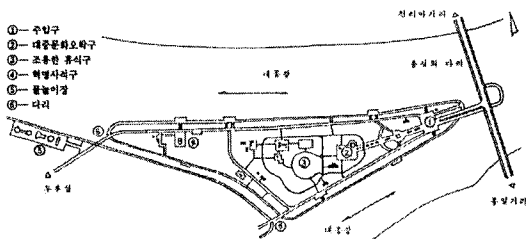
로 구분되어 조성되었다. 충성의 다리에서 섬으로 내려오는 입체다리 축선상에 주입구가 조성되고(그림10) 보조입구로서 부두가 하나 건설되었다. 주입구 가까이 대중문화오락구가 계획되어 구역 중앙에 원형무도장을 배치하고 그 주변에 민속놀이터를 마련하였으며 문화휴식에 필요한 소건축물과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그림11). 조용한 휴식구는 주입구로부터



혁명사적구 원립형성계획

- |             |         |
|-------------|---------|
| 1- 통일전선탑    | 7- 다리   |
| 2- 원두막      | 8- 물놀이장 |
| 3- 협의회장소    | 9- 강생원비 |
| 4- 사적비드나무   | 10- 온실  |
| 5- 참외, 수박 밭 | 11- 사무실 |
| 6- 부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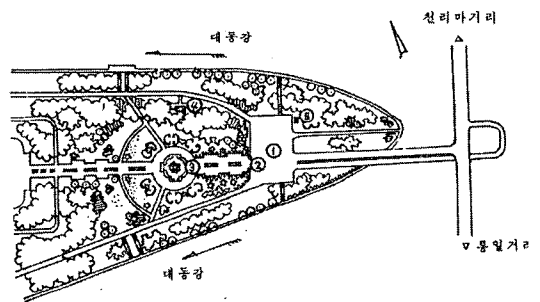
(그림9) 혁명사적구 원립형성 계획도(출처:「조선건축」, 제15호:25)



쑥섬혁명사적지 원립형성계획도

- |            |          |
|------------|----------|
| ①- 주입구     | ④- 혁명사적구 |
| ②- 대중문화오락구 | ⑤- 물놀이장  |
| ③- 조용한 휴식구 | ⑥- 다리    |

(그림8) 쑥섬혁명사적지 원립형성 계획도(출처:「조선건축」, 제15호: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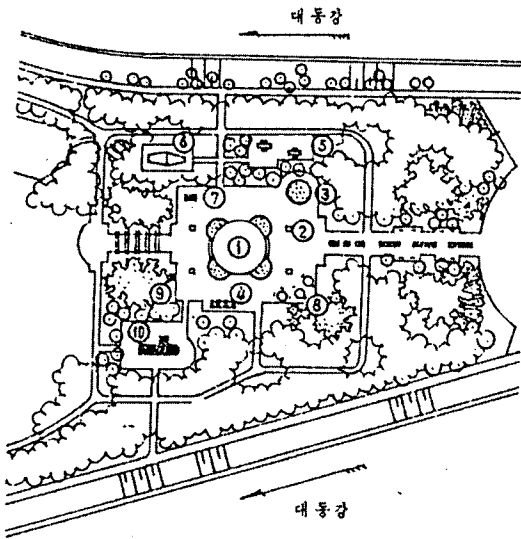


주입구 원립형성계획

- |        |         |
|--------|---------|
| 1- 주차장 | 3- 중심화단 |
| 2- 화대  | 4- 뿔프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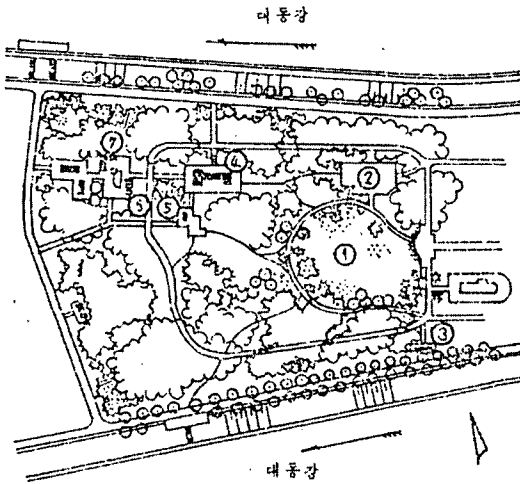
(그림10) 주입구 원립형성 계획도(출처:「조선건축」, 제15호:26)

11) 김철수(1992), "불멸의 혁명사적 길이 전할 선봉혁명사적지", 「조선건축」, 제19호:25-34.



- 대중문화오락구 원림형성계획
- 1- 무도장
  - 2- 조각
  - 3- 씨름터
  - 4- 그늘막대
  - 5- 널찍기터
  - 6- 그네터
  - 7- 매점
  - 8- 장기터
  - 9- 음료점
  - 10- 청량음료점

(그림11) 대중문화오락구 원림형성 계획도(출처:「조선건축」, 제15호:26)



- 조용한 휴식구 원림형성계획
- 1- 잔디밭
  - 2- 어린이놀이터
  - 3- 관리소
  - 4- 식당
  - 5- 매점
  - 6- 화대
  - 7- 그늘막대

(그림12) 조용한 휴식구 원림형성 계획도(출처:「조선건축」, 제15호:25)

떨어진 곳에 계획하여 이곳에 담화대, 의자 등을 설치하고 소규모의 휴식광장을 조성하는 한편 매점, 식당 등을 만들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그림12).

쑥섬혁명사적지의 원림형성은 혁명사적지와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한편 섬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어울리도록 하였다. 특히 혁명사적구역의 원림은 사적물과 사적터가 두드러져 보이도록 조성하였는데, 예를 들어 통일전선탑의 경우에 탑 양옆과 뒤에는 상록교목을 심어 배경을 형성하고 탑 앞에는 교양마당을 배치하고 키작은 꽃나무를 심어 앞공간을 개방하였으며, 협의회장소의 경우에는 주변에 30년 이상 자란 교목을 심어 오랜 역사를 상징하도록 하였다.<sup>12), 13)</sup>

#### 4. 왕재산혁명사적지

함경북도 온성군에 위치한 왕재산혁명사적지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혁명업적을 보여준다는 두만강 기슭 왕재산에 조성된 혁명사적지로서, 김일성의 혁명업적을 드높이고 당의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주체사상화를 실현하기 위한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는 학교 및 거점으로 꾸며지게 되었다.

왕재산혁명사적지는 온성읍에서 두만강을 따라 북동쪽으로 3km 떨어진 풍인천 오른쪽 지대의 왕재산회의장소와 타막골혁명사적지 및 그 주변의 사적지들을 포함하는 총 450만㎡의 부지에 전개되어 있으며, 크게 혁명사적구역, 정치교양구역, 봉사 및 경영관리구역, 휴식구역 및 보조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13).

혁명사적구역에서 핵심적인 장소는 왕재산 대기념비이다. 이 기념비는 1933년 3월 11일에 있었다는 왕재산회의를 기본주제로 하는 것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드높이기 위해 조성되었다. 기념비 형성에서는 탑과 함께 김일성의 동상도 세워 김일성의 혁명업적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혁명사적구역에는 타

12) 김영순(1991), "민족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쑥섬혁명사적지 원림형성", 「조선건축」, 제15호:24-26.

13) 최춘길(1991), "쑥섬혁명사적지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16호:5-8.

막골혁명사적지를 비롯하여, 김일성의 혁명사적을 보존하고 있는 장소마다 사적물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여러가지 모양으로 표식주를 세웠다. 정치교양구역에는 연건축면적이 8,500여㎡인 왕재산혁명박물관을 배치하였다. 봉사 및 경영관리구역은 지대의 특성을 고려,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사적지입구 오른쪽에는 상점, 식당 등의 봉사시설을, 왼쪽 산기슭에는 온실, 보일러실, 창고를 배치하였다. 휴식구역에는 전망대와 휴식장소를 마련하고 여러가지 오락시설을 배치하는 한편 녹지를 조성하였다.

왕재산혁명사적지의 원림계획은 왕재산대기념비 주변을 잘 꾸미는데 중점을 두고, 기념비의 앞면은 트인 공간으로 형성하고 옆면은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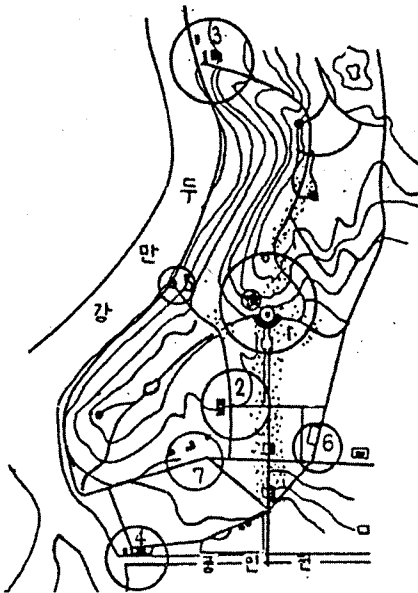
나무를 풍치식으로 배치했으며 뒷면은 울창한 나무숲을 배경으로 하여 나무를 심고 그것을 풍치구에 인입하였다. 이러한 원림형성에 힘입어 기념비가 더욱 부각되어 자연풍치와 조화를 이루면서 웅장함을 나타내고 있다.<sup>14)</sup>

### 5. 회령혁명사적지

함경북도 회령군에 위치한 회령혁명사적지는 김정숙이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곳을 혁명교양의 거점으로 꾸며 모든 당원과 근로자를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우기 위해 조성한 장소이다. 이 사적지는 1960년대 말에 조성된 후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새롭게 꾸며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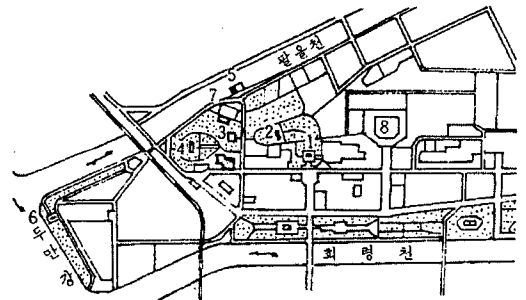
회령혁명사적지는 크게 도시중심광장지역, 회령고향집사적지역, '김정숙동지혁명사적관' 사적지역, 오산덕혁명사적지역, 팔울천혁명사적지역, 망양나루티혁명사적지역의 6개 혁명사적구역 및 대중문화휴식구역, 상업편의봉사구역, 관리경영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14).

도시중심광장지역에는 김정숙의 동상을 세



**왕재산혁명사적지 지역분할도**  
 1- 대기기념비를 세운 구역 (대기념비, 왕재산회의장소, 군상)  
 2- 혁명박물관구역 (혁명박물관, <피바다> 상)  
 3- 타막골혁명사적지구역 (타막골혁명사적비, 왕재산밀영)  
 4- 광덕나무습격전투장소 (표식주)  
 5- 어청원호몰자 건너보낸 장소  
 6- 봉사구역 (상점, 식당, 차고, 사무실)  
 7- 경영관리구역 (온실, 보일러실, 창고)

(그림 13) 왕재산혁명사적지 지역분할도(출처:「조선건축」, 제14호:9)



**회령혁명사적지 안내도**  
 1- 불요불굴의 공산주의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동상을 정중히 세운곳  
 2- 회령고향집  
 3- 김정숙동지혁명사적관  
 4- 오산덕종합표식비  
 5- 팔울천혁명사적지  
 6- 망양나루티혁명사적지  
 7- 경영관리건물  
 8- 소년공전

(그림 14) 회령혁명사적지 안내도(출처:「조선건축」, 제13호:32)

14) 김철수, 고창희 (1991), "왕재산혁명사적지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14호:9-13.

우고 그 주변에 혁명사적비를 배치하는 한편 교양마당과 대기마당도 마련하였다. 동상주변 공간의 형성에서는 주변의 건축물과 시설물, 녹지 등의 요소들이 동상을 부각시키는데 도움이 되게 배치하였고 동상주변공간을 넓게 열어주었으며 동상과 사적비 주변에 자연바위와 인공못, 폭포를 만들어 풍치구를 조성하였다. 회령고향집사적지역은 김정숙이 태어났다는 회령고향집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을 포함하는 구역이다. 이 지역의 형성에서는 고향집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오산덕의 자연풍치에 어울리게 주변공간을 꾸미는 것이 기본이 되었다. 고향집 안마당에는 종합표식비를 세우고 김정숙이 어린 시절 사용했다는 방앗간자리와 샘물터를 원상대로 꾸미고 그 옆에 표식비를 세웠다. '김정숙동지혁명사적관' 사적지역은 혁명사적관을 중심으로 한 구역으로, 사적관 앞의 넓은 공간에는 잔디밭을 조성하여 공간을 열어주고 뒤에는 인공산을 만들고 나무들을 풍치식으로 집중배치하여 풍치배경을 조성하였다. 오산덕혁명사적지는 김정숙이 어린 시절 나물캐기와 이삭줍기를 했다는 곳으로, 이곳에 종합표식비를 세우고 교양마당을 마련했으며 정각과 원경대를 배치하고 그 주변에는 표식비를 세웠다. 팔울천혁명사적지역에는 김정숙이 어린 시절 강가에 나와 빨래를 했다는 빨래터와 뉘시터가 있으며 이곳에 표식비를 세우고 그 주변을 휴식장소로 조성하였다. 망양나루터혁명사적지역은 김정숙이 여섯살 되던 해에 유랑의 길을 떠날 때 두만강을 건넜다는 곳인데, 여기에는 표식비와 유화판을 세우고 그 앞에 교양마당을 배치하였다.

회령혁명사적지에는 6개의 혁명사적구역 이외에도 문화오락시설과 휴식시설을 배치한 대중문화휴식구역, 각종 편의봉사시설을 배치한 상업편의봉사구역, 그리고 제작실, 보일러실, 창고, 온실 등의 시설을 배치한 관리경영구역이 있다.<sup>15)</sup>

## VIII. 고찰 및 결론

북한에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는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가는 상징적 중심지로서, 1960년대부터 이에 대한 건설이 본격화되어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확장 및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의 설치가 소위 김일성과 그 일족들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고 북한주민들을 혁명사상으로 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는 북한주민에게는 혁명의 학교이며 대외적으로는 세계인민을 위한 혁명의 교과서이자 투쟁의 현장이 되는 곳이다. 최근에는 김일성·김정일 권력승계와 결부시켜 김정일 이상화와 관련된 기념물을 설치하는 등 이들 장소에 대한 계속적인 개건 및 신축으로 북한 전역에는 이제 가는 곳마다 각종 이상화 시설 및 상징조작물이 조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북한의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가 지닌 일반적 특성을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의 국토계획은 김일성 개인을 이상화하는 정책수단 가운데 하나가 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건설을 국토건설총계획에 포함해야 할 제일 우선 항목으로 강조하여 이들 공간을 전국 곳곳에 대규모로 건설하고 성역화한 뒤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김일성 유일사상 주입 및 그 가계우상화를 위한 학습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는 대개 김일성과 그 일족들이 출생한 지역과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했다는 장소에 건설되어 주로 평양시, 백두산 밀림지대, 두만강 및 압록강 연안 일대, 함경남북도, 양강도, 자강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형성에서는 사적터, 사적건물, 사적물, 사적도로, 전투지휘

15) 김철수(1990), "영광의 땅 — 회령혁명사적지와 그 주변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13호:31-36.



- 처 등을 원상대로 복구보존하고, 주변의 풍치를 고려한 원림조성을 강조하고 있다.
-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건설시 해당 혁명사적 및 전적의 내용에 따라 김일성과 그 일족의 동상을 설치하고 기념탑, 기념비, 사적비, 유래비, 헌시비 등의 각종 기념건축구조물을 건립하고 있으며, 사적내용을 알 수 있게 표식비, 표식주, 유화판을 설치하고 동상 앞, 사적터와 사적건물 앞, 사적비 앞, 표식비와 유화판 앞에 교양마당을 배치한다. 또한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하는 사적관 및 박물관을 건립하는 한편 휴양소, 휴게소, 야영소, 숙소 등의 봉사 및 휴식시설을 설치한다.
  - 기존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에 동상을 비롯하여 비석 및 기념물을 대규모로 새롭게 설치하고 이들 구조물을 중심으로 한 공원조성에도 힘쓰는 등 주변 환경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 북한은 기존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에 대한 기념관, 전시관, 근로자회관, 학생관, 대중집회장 등의 각종 편의시설 설치, 기존 도로 확장 및 포장, 도로 신설 등의 주변환경 정비 및 시설 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북한은 새로운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를 개발하여 김일성 및 그 가계 우상화와 연관된 관광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와 관련하여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분석, 예를 들어 지역적 특성, 시대별 형성과정, 혁명사적 및 전적내용 등에 따라 공간구성 원리 및 기법, 세부공간 배치계획, 배치시설물 유형 및 양식상에 어떤 차이점이나 특징들이 나타나는지에 관해 세부적인 고찰이 필수적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들 장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북한자료가 풍부하지 못하여 정부가 입수·공개한 한정된 자료만으로는 공간을 정확하게 비교·분석하여 일반화하는데 무리가 따른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향후 이들 장소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며,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후속적인 연구가 수행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 먼저 북한의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에 관한 각종 문서, 기록 및 도면자료를 최대한 입수하여 각 시대별로 입지적 특성 및 공간배치상에 어떤 특기할 만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관한 연구.
  -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관한 연구(예를 들어 당과 지도자의 지배이념에 따른 표현인지 혹은 시대별 공간형성 양식에 따른 결과인지).
  - 김일성 가계도에 나타난 인물들을 우상화하기 위해 조성된 이들 장소가 지닌 공간적 유사성과 상이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
  - 개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의 형성배경과 공간적 구현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내재하는지에 관한 연구.
  - 입지적 특성과 공간배치 계획상에 어떤 일반적인 계획원칙과 공간구성원리가 존재하는지에 관한 연구.
  - 마지막으로 현상학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북한사회의 성원들이 이들 공간을 이해하는 의미의 세계를 준거틀로 삼아 이들 공간의 성격을 파악하고 해석해보려는 시도.
- 이상과 같은 향후 연구방향의 제안과 아울러 본 연구자는 장차 남북한이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통일될 때에 대비하여 북한의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공간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 먼저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가운데 일부는 원상대로 보존하여, 한민족의 현대역사 전개과정에서 발생한 북한의 민족문화 및 역사 왜곡의 실상을 국민들이 직접 체험케 하고 후손에게도 보여주는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부 혁명사적지 및 혁명

전적지는 테마공원의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활용하여, 사회주의 정치이념을 상징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기 위해 북한 전역에 설치된 주요 상징기념물과 우상화동상을 한 곳에 모아 한정된 공간에서 전시하는 동상(銅像)공원의 개발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 북한의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는 대개의 경우 장소가 지닌 역사적 기념성과 상징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녹지공간은 자연환경을 제공하는 오픈스페이스로서 보존·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고 판단한다. 현재 남한은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부작용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겪고 있다. 특히 무분별한 도시개발로 인한 녹지공간의 부족현상은 자연속에서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현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현대생활에 필요한 녹지공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은 도시화의 진전이 느리고 혁명사적지나 혁명전적지와 같은 오픈스페이스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므로 남한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여겨진다.

■ 통일이 되면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의 녹지공간을 국유지로 묶어두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자원의 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점진적으로 보존·개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들 녹지공간은 환경의 질과 생활의 질을 개선하며 경관의 질을 고양하는 공원 및 녹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이러한 공간들을 휴식 및 여가활동의 장소인 공원 및 녹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산발적이고 자족적인 공원녹지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조직적인 오픈스페이스 체계의 조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두만강, 압록강, 백두산 등지의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 처럼 주변에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장소들은 자연생태계의 경이와 구조, 동·식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체

험할 수 있는 생태공원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혁명역사와 투쟁업적을 내용으로 하는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는 현재 북한주민 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방문 및 답사를 유도하고 있는 관광코스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장소가 참관목적 및 수단, 답사행태, 배치시설의 성격 및 내용 등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관광자원이라 할 수 없으나, 통일후 이들 공간을 적극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이들 장소 가운데 일부를 보존·활용한 참된 관광지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행지의 고유문화를 접하고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자 하는 현대 및 미래의 관광객들에게 이들 공간은 북한의 지방색을 살린 개성있는 관광지로서 그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이들 장소와 연관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향토음식, 특산물, 현지인들의 생활사(史)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광자원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및 북한의 각종 자료를 가지고 문헌연구의 형태로 수행한 본 연구의 결과물은 조경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 그동안 학술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건설에 대하여 소개하는 포괄적인 자료로서, 통일에 대비한 효율적 공간활용방안 수립을 위해 보다 진전된 논의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또한 본 연구로 인하여 통일에 대비한 거시적인 국토 및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연구만이 아닌 미시적인 조경 및 도시설계 분야에서의 활발한 논의와 연구 그리고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공간활용방안이 모색됨을 기대한다.

앞으로 보다 발전된 연구를 위하여 북한의 혁명사적지 및 혁명전적지 건설에 관한 보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자료들을 북한이 공개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북한정보에 대해 독점이나 제한보다는 공유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

다. 또한 남북 상호간 학술교류와 왕래를 통하여 현지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공간활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인용 및 참고문헌

1. 공업종합출판사(1993), "전승혁명사적지", 「조선건축」, 제24호:11-16.
2. 과학백과사전출판사(1981), 「현대조선말사전」,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3. \_\_\_\_\_ (1982), 「백과전서(1)」,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4. \_\_\_\_\_ (1983), 「백과전서(2)」,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5. \_\_\_\_\_ (1983), 「백과전서(3)」,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6. \_\_\_\_\_ (1983), 「백과전서(4)」,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7. \_\_\_\_\_ (1984), 「백과전서(5)」,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8. \_\_\_\_\_ (1984), 「백과전서(6)」, 평양:과학백과사전출판사.
9. 국가안전기획부(1986), 「김일성가계 우상화 실태」.
10. 국토통일원(1983), 「북한행정구역 및 산천지세」.
11. \_\_\_\_\_ (1984), 「북한의 지역개발 및 해외인사초청 선전실태」.
12. \_\_\_\_\_ (1985), 「북한의 관광자원 현황 및 개발실태」.
13. 권영태(1990), "불멸의 대기넘비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조선건축」, 제11호:10-13.
14. \_\_\_\_\_ (1993), "위대한 평양의 모습 빛나는 땅 — 고산진혁명사적지를 찾아서 —", 「조선건축」, 제23호:7-10.
15. 김동찬, 김광래, 안봉원, 서주환, 김신원(1995), "북한의 공원 및 유원지 형성에 관한 연구", 「조경연구」, 23(2):29-43.
16. 김영란(1991),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사적 길이 전할 창덕학교", 「조선건축」, 제17호:4-9.
17. 김영순(1991), "민족통일운동사에 길이 빛날 축성혁명사적지 원림형성", 「조선건축」, 제15호:24-26.
18. 김원(1993), "북한의 토지정책", 「북한」, 1993.4:66-77.
19. 김일성(1981), 「김일성 저작집 12(1958.1-1958.12)」,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228-232.
20. \_\_\_\_\_ (1986), 「김일성 저작집 32(1977.1-1977.12)」,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224-238.
21. \_\_\_\_\_ (1993), 「김일성 저작집 39(1985.1-1986.5)」,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136-139.
22. 김정일(1992), 「김정일 선집 1(1964-1969)」,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29-37, 375-389.
23. \_\_\_\_\_ (1993), 「김정일 선집 2(1970-1972)」,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52-60.
24. 김철수(1990), "영광의 땅 — 회령혁명사적지와 그 주변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13호:31-36.
25. \_\_\_\_\_ (1992), "불멸의 혁명사적 길이 전할 선봉혁명사적지", 「조선건축」, 제19호:25-34.
26. \_\_\_\_\_, 고창희(1991), "왕재산혁명사적지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14호:9-13.
27. 김홍운(1993), "남북관광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연구", 「북한」, 1993.4:98-103.
28. 김화식(1990), "삼일포혁명사적지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12호:8-12.
29. 동아일보사(1989), "북한현대사와 북한자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원자료로 본 북한 1945-1988」, 서울:동아일보사:14-26.
30. \_\_\_\_\_ (1995), 「김정일 북한대백과」, 서울:동아일보사.
31. 로재완(1991), "비의 사상예술성과 조형성을 잘 형성한 독특한 해결 — 김정숙동지께서 머리감으신곳 표식비와 청봉헌시비의 건축구성상 특징에 대하여 —", 「조선건축」, 제17호:10-11.
32. 로진성(1990), "덕골혁명사적지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10호:6-7.
33. 리화선(1993), 「조선건축사Ⅱ」, 서울:발언.
34. \_\_\_\_\_ (1993), 「조선건축사Ⅲ」, 서울:발언.
35. 백과사전출판사(1974), 「백과사전(1)」, 평양:백과사전출판사.
36. \_\_\_\_\_ (1975), 「백과사전(2)」, 평양:백과사전출판사.
37. 북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88), 「현대조선말사전」, 서울:백의.
38. 북한연구소(1975), "북한연구의 학적 체계와 방법적 성찰", 「북한」, 1975.8:102-114.
39.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3), 「조선문화어사전」, 평양:사회과학출판사.
40. 신재명(1991), "북한 토지정책의 전개과정과 그 특징 — 토지법 변화를 중심으로", 「북한」, 1991.10:129-144.
41. 염형민(1994), 「북한의 국토개발 — 도시와 교통을 중심으로」, 공보처:23-32, 47-48.
42. 윤용(1995), 「북한의 지리여행」, 서울:문예산책:29-32.
43. 이영택(1991), 「최신북한지도」, 서울:우진지도문화사.
44. 이온죽(1989), 「북한사회연구 — 사회학적 접근」, 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3-25.
45. 이장춘 외(1995), 「통일과 관광개발 — 한반도 관광진흥장기종합계획」, 서울:한국관광진흥연구원.
46. 주용구, 윤연(1991), "영광의 땅 — 백송혁명사적지", 「조선건축」, 제15호:17-23.
47. 최운숙(1992), 「사회주의하에서 국토관리사업과 민족경제건설」, 평양:사회과학출판사.

48. 최춘길(1991), “쑥섬혁명사적지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16호:5-8.
49. 치안본부(1991), 「북한의 지리와 지명편람」.
50. 한국관광공사(1991), 「북한의 관광자원」.
51. 한국안보교육협회(1989), 「화보로 보는 북한의 이상화 실태」, 서울.
52. 한청일(1991), “포평혁명사적탑”, 「조선건축」, 제16호:2-4.
53. \_\_\_\_\_(1992),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 건축형성”, 「조선건축」, 제19호:17.
54. 허영림(1990), “불멸의 대기념비 주체사상탑 주변 원림형성”, 「조선건축」, 제10호:69-75.